기도의 완성 두 날개는 '간절함'과 '정성'



불교기도문
동명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누구나 살면서 간절할 때 한번쯤은 기도를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 의식'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어려운 일에 부닥치거나 삶의 중요한 시기에 놓이면 누구라도 자연스레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손을 모은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다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바람을 현실로 이루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시인이자 출가 수행자인 동명 스님(금강정사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에 따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고 한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다. 다만 마음을 모아 집중해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염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힘을 잃게 된다.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따라 읽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에 나온 기도문에 자신만의 서원을 굳건히 담아서 기도해 보길 바란다. 명심할 것은 기도를 완성하는 두 날개가 '간절함'과 '정성'이라는 사실이다.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핵심은 말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를 생활화해 매 순간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기도는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평소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자신의 기도는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한 사람들을 위한 실용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더없이 안성맞춤인 책이다. 특별히 일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한국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안내서이자 필수 소장서이다.

기도하는 것도 수행, 살며 사랑하며 기도를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공덕(功德)'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거나 자비를 베풂으로써 얻게 되는 무언가를 뜻한다. 자고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세상서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어 복(福)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행위 역시 공덕을 쌓는 일이다. 왜 그럴까? 불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나'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아닌 것, 모든 존재(생명)의 행복을 함께 기원한다. 기도를 이루는 과정도 다르다. 절대적인 힘에 완전히 기대어 단박에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보통의 기도라면, 불교 기도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춤 없이 노력하리라는 다짐이 골자다. 그래서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힘에 도움 받되 주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 기도의 본질이다. 알다시피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과 해탈이다. 이를 위해 불자들은 부지런히 참선 명상 하고 염불을 한다. 그러면서 빈다. '나와 남이 동시에(自他一時)' 깨닫고 해탈하기를. 혼자서 수행하든 여럿이 함께 수행하든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하든,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불교 기도도 마찬가지다.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다. 이 점에서 불교기도 역시 공덕을 쌓는 또 하나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 **"깨어있고 간절히 생각행동할 때 기도 성취"**
> **기도 습관 없는 불자들에게 필요한 안내서**
> **불교의 기도, 자신발원 이룰 때까지 꾸준히**
> **일상서 특별 순간까지 불교 기도문 총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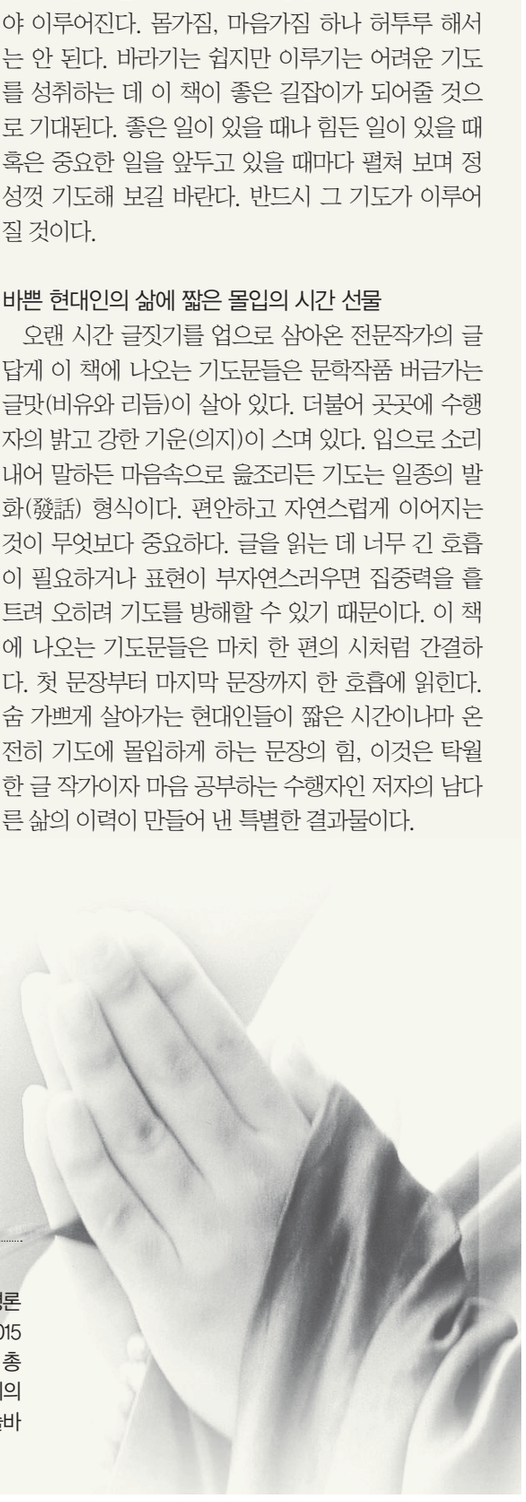
불교 기도에 관한 인식 180도 달라졌다

'기도' 하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자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에도 기도하는 수행 전통이 있다. 다만 여타의 불교 수행처럼 기도 역시 사찰 같은 특별한 공간서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명상의 유행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불교 수행이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불교 기도에 관한 인식도 180도 달라졌다. 집이나 사무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기도를 일상의 수행으로 삼아 실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불어 일상에서 활용할 만한 불교기도 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책 〈불교 기도문〉은 이런 대중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 같은 책이다. 남녀노소 현대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도집으로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매일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기도문, 2장에는 생애 특별한 순간을 위한 기도문, 3장은 연중 주요 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 4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불자로서 신행 수행할 때 유용한 여러 가지 정진 기도문과 법회 기도문을 담았다. 각 기도문에는 연결 지어 되새겨 볼 만한 짧은 부처님 말씀(법구경 외)을 함께 실었다.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대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어려운 불교 용어 대신 일상 언어를 사용했으며,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 혹은 카페 등서 꺼내 볼 수 있도록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다. 또한 백색 종이에 은박으로 장식해 차분함과 고요함을 시각화한 표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대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몸가짐, 마음가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바라기는 쉽지만 이루기는 어려운 기도를 성취하는 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펼쳐 보며 정성껏 기도해 보길 바란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 짧은 몰입의 시간 선물

오랜 시간 글짓기를 업으로 삼아온 전문작가의 글답게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문학작품 버금가는 글맛(비유와 리듬)이 살아 있다. 더불어 곳곳에 수행자의 밝고 강한 기운(의지)이 스며 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읊조리든 기도는 일종의 발화(發話) 형식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을 읽는 데 너무 긴 호흡이 필요하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우면 집중력을 흩트려 오히려 기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간결하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 호흡에 읽힌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게 하는 문장의 힘, 이것은 탁월한 글 작가이자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인 저자의 남다른 삶의 이력이 만들어 낸 특별한 결과물이다.



▲저자 **동명 스님**은?

시인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이다. 1989년 계간 〈문학과 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고,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간 활동했다.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서 사미계를 받았으며, 2015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구족계를 받았다. 북한산 중흥사 총무,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명시 금강정사서 총무 소임을 맡고 있다. 출가 전에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나무 물고기〉 〈고시원은 괜찮아요〉 〈벼랑 위의 사랑〉 등의 시집과 기행 산문 〈인도 신화 기행〉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등을 펴냈으며, 출가 후에 선시 수상집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펴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제13회 대원불교문화상을 수상했다.

경전 정수 모아 용수보살의 〈중론〉 수증 이론으로 재구성



입중론강해
월칭 조송/법존 역강
지엄 한역
운주사 펴냄/2만5천원

대승불교에서 공(空)과 중도(中道)를 설한 가장 중요한 논서인 용수보살의 〈중론〉. 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 보살의 〈입중론〉이 중국불학원 원장을 역임한 법존법사의 상세한 해설을 담아 한국 최초로 온전히 번역되었다. '〈중론〉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입중론(入中論)〉은 티베트 불학원서 필수교재로 수학하는 오부 논서 중 하나로, 특히 지혜와 공덕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서로 평가받고 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 논을 중시해 늘 곁에 두고 매일 독송한다고 알려져 있고, 불학원에서 수학하는 학승들도 필수적으로 이 논의 게송을 암기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티베트불교에서 이 논서가 중관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이 책이 일반에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중론〉의 원문 전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입중론〉을 지은 월칭 보살은 용수-제바-불호로 이어지는 중관사상을 계승해 귀류 논증의 학설로써 중관 응성파의 이론을 정립한 대학자이자 고승이다. 이 책을 번역한 지엄 스님은 일찍이 오명불학원서 〈입중론〉을 공부하면서 이 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논서가 한국에 번역 소개되면 티베트 중관사상이 한국 불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중국 근대 고승으로서 티베트 논서를 다수 번역한 법존 법사의 〈입중론강기〉를 만나 이 책 속에 〈중론〉의 도리가 간략하게 잘 설해져 있음을 파악하고 번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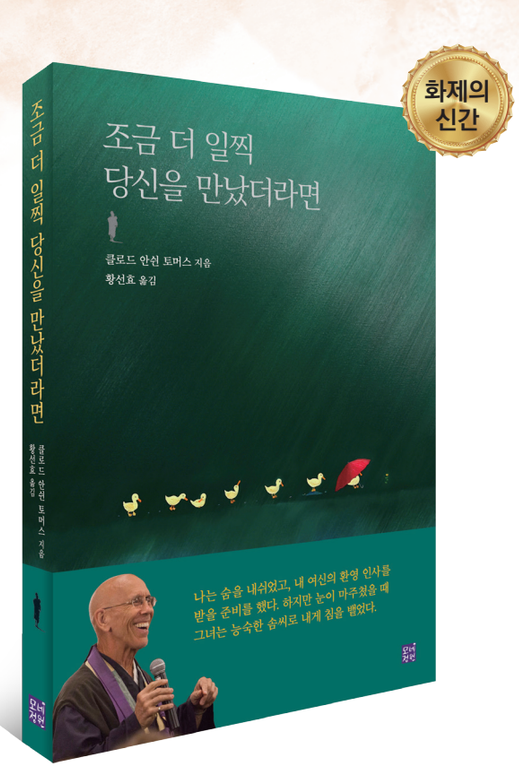
이 책에서 월칭 보살은 모든 경전의 정수를 모아 용수보살의 〈중론〉을 수증 이론으로 재구성하고, 대공성의 반야교의를 천명함과 아울러 상견(常見)과 단견(短見)에서 벗어나 현현(顯現)과 공성(空性)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고, 세속제(世俗諦)와 승의제(勝義諦)가 쌍운해 구경의 과(果)로써 대원만을 증오(證悟)하는 도리를 밝히고 있다.

> **티베트불학원 필수교재 오부 논서 중 하나**
> **지혜와 공덕면에서 중요 논서로 평가받아**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중론〉 구성은 〈화엄경 십지품〉에 의거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이 논은 '공종정견'과 '수행차제'의 심오함과 광대함 두 가르침을 고르게 해석한 것이라 하고, 초지(初地)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기까지 차제에 의거해 배열했는데 매 지(地)마다 보살의 수행 성취 공덕을 서술했고, 이공(二空)의 이치는 반야바라밀에 입각해 널리 해석했다고 한다. 이어 〈중론〉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그 다음은 세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보리심을 발하며, 보살행을 수행하고, 무상불과 또한 마침내 성취하는 날이 있음을 알고 관해야 한다. 다음은 마땅히 원만한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불법은 듣기 어려우며, 오탁악세에 대승법을 듣는 것은 더욱 희유함을 사유하라고 한다. 또 〈반야경〉을 인용하면서, 반야를 배우는 것은 세세생생 행하여도 다함이 없다고 하였다. 세세생생 대반야가 있는 곳에 태어남을 얻고, 선지식의 반야법문 설하심을 만나 일체 반야를 배움이 점차 증가하는 인연을 구족하고, 선지식을 기꺼이 가까이하며, 정법을 즐겨 듣고 보살행을 즐겨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법을 듣는 자는 응당 희유심을 낼 것이며, 항상 삼업이 인과에 수순하는지를 관하고, 불법의 오계와 십선을 닦으면 곧 인천복보(人天福報)를 잃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임종 시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중근기의 사람이 이 공덕을 극락왕생에 회향하면 곧 정토왕생의 수승한 성취를 얻게 되고, 상근기는 세세생생에 불법을 만나 대보살께 섭수되고, 최후에 반드시 불타의 수기를 입어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복덕 일체가 원만한 최상근자는 금강승에 의지해 현신으로 성불하게 되니, 이들이 수승한 중의 수승한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말세에 복덕이 원만한 근기를 얻기는 어렵기에 다만 출리심, 보리심으로써 '심심혜'와 '광대행'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세세생생 항상 대보살께 섭수되어 구경성불의 성취에 이르는 것이 〈입중론〉을 듣는 자에게 응당 있어야 하는 종취(宗趣)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써 〈중론〉을 배운다면 종카빠 대사, 월칭 논사의 공덕이 후세인의 수행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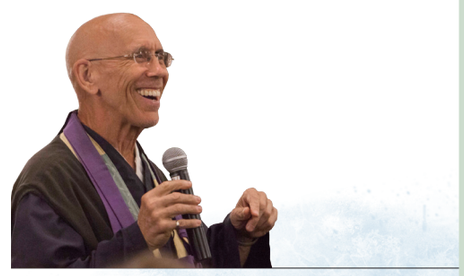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